



ds 716+

NAS 입문자를 위한 지침서이길 바랐던 그저 공감글

어려울 것만 같은 NAS도 알고 보면 별 게 아니다. 우리가 쓰는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물성화한 것에 불과한 것. 여기 입문자를 위한 지침서를 만자보자.

집 안의 조그마한 데이터 센터

NAS는 '네트워크 결합 저장소(Network Attached Storage)'를 뜻한다. 외형은 데스크톱 PC의 본체를 작게 만든 것처럼 생겼는데, 안에 하드디스크와 CPU 같은 진짜 컴퓨터 부품들이 들어간다. 소형 데스크톱 PC라고 볼 수도 있다. 단, 역할은 오로지 저장에 특화됐다. 원래는 컴퓨터가 저장한 파일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노래도 들었던 것인데, NAS는 저장 용도에 특화해 오로지 파일 저장소 역할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NAS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걸 대신 해줄 다른 디바이스와 연동해야 한다. 그제 내 컴퓨터, 요즘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NAS가 하나의 작은 데이터 서버

라서 그렇다. 쉽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클라우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드롭박스 등 클라우드 서비스는 별도로 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구 어딘가에 감춰놨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 은밀한 데이터센터에 내 드롭박스와 구글 드라이브와 아이클라우드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NAS는 그런 데이터센터를 초소형화해서 집 안에 가져다 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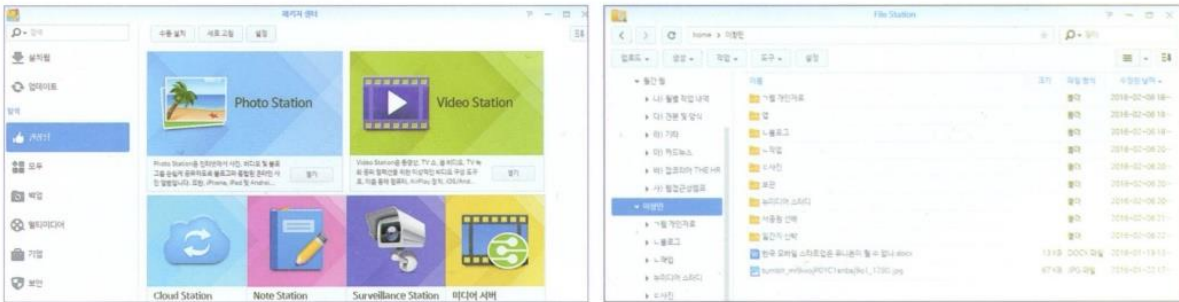
NAS를 내 컴퓨터와 연동하는 법

기자는 오랫동안 클라우드 파였다. 드롭박스와 아이클라우드, 원드라이브까지 이용하는 스토리지 갑부다. 이게 다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많고 그에 최적화해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매달 과금으로 은근 부담스러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NAS가 대체할 순 없을까? 기자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제품은 시놀로지 DS716+. 비싼 고급형 모델인데, 10만 원대 저렴한 제품도 있다니까 참고하자.

첫 단계는 NAS에 하드디스크(별매)를 끼우고 LAN 선을 연결하는 작업. 이제 내 집에

작은 서버가 생겼다. 작게 호스팅 사업부터 시작해 돈을 벌어 진짜 갑부가 되고 싶은데, NAS 서버와 컴퓨터를 연동하는 작업이 꽤 까다롭다. 다행히 시놀로지는 'find.synology.com'이란 직관적인 URL(찾아줘, 시놀로지)에 접속해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연동할 수 있기는 무슨 설치 중간에 NAS 본체에서 '삐-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하더니 그 굉음은 멈추질 않았다. 기자는 뭐 평소에 잘못된 것도 없고 착하게 살았는데 경고음이 온 집안에 퍼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NAS에 끼운 하드디스크의 문제. 불량률이 높은 시게이트의 3TB 하드디스크가 기어코 개박치가 되고 만 것이다. 기자는 WD 하드디스크로 교체해 드디어 연동에 성공했다.

이제 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가 FTP 방식으로 연결됐다. 웹 브라우저가 아니라 로컬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28GB짜리 맥북의 스토리지가 1TB로 늘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외부에서 웹이나 전용 앱을 통해 DSM(DiskStation Manager)에 접속해 NAS 내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다.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로컬 동기화와 외부 접근까지 둘 다 할 수 있는 것 또



좌측부터
패키지 센터
웹 브라우저로
접속한 DSM이다

한, DSM은 NAS를 제어하는 가상 OS로 역할 한다. 그래서 DSM이 중요하다. 사실 시놀로지가 좋다는 이유는 이 DSM을 통해서 NAS를 정말로 다양한 용도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활용 ① Cloud Sync

기자처럼 기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NAS를 쓰면서 또 다른 스토리지를 복수 운용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시놀로지는 'Cloud Sync'란 확장 프로그램으로 NAS 안에다 클라우드를 동기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원래 내 컴퓨터의 내부 저장공간에 동기화해 사용하던 것을 NAS로 옮겨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은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박스, 바이두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 등 총 13개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동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내 파일을 '열람'할 수만 있는 미러링 방식이 아니라 '생성' 및 '수정'까지 가능한 것. 데이터 관리 리소스를 단일화할 수 있는 것. 넘나 좋은 것.

활용 ② Download Station

NAS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torrent' 파일이나 마그넷 URL을 입력해 NAS에 직접 토렌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너무도 방대해 별판 같았던 NAS 저장공간을 미디어의 극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놀라운 점은 외부 접근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DS Download'란 앱을 통해 모바일로 내려받은 'torrent' 파일을 열어주면, 하염없이 집을 지키고 있던 NAS가 파일을 내려받기 시작한다. 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토렌트 파일만 받아 앱에 던지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디어를 바로 즐길 수 있게 됐다. 주 사용처는 남자들은 다 아는 그거다. 그거.

활용 ③ 미디어 아카이브

NAS를 아무리 토렌트 극락으로 만들어도, 족히 1TB가 넘는 스토리지를 다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기자는 NAS를 개인용 미디어 아카이브 센터로 이용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와 노트북으로 파편화된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을 모두 NAS로 옮겨 버린 것이다(그래도 남더라). 그리고 미디어 포맷에 따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용했는데, 프로그램명은 각각 Photo Station, Video Station, Audio Station이다. 이 역시 전용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다.

활용 ④ 패키지 센터

위처럼 NAS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DSM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 덕. 시놀로지는 처음부터 방대한 기능을 기본 탑재하면 사용자가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 판단했고, 일종의 앱스토어인 '패키지 센터'를 구축해 원하는 확장 프로그램만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로 첫 사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패키지 센터에 등록된 확장 프로그램의 수만 72개. 앞으로 기능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활용도는 더욱 높아진다. 이리다 나중에는 NAS가 세상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리

클라우드 시대의 NAS는 집 안에서 좀 더 안전하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데이터 센터다. 우리집 안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중소형 규모의 기업의 서버로 활용하기도 좋다. 이미 NAS의 제품군은 개인부터 단체까지 커버지리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니까. 초기 구축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순 있으나, 직접 써보니 꼭 그렇지도 않다. 그 외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NAS만 있으면 따로 외장 하드를 살 필요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기구독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16GB 아이폰을 쓰더라도 NAS만 있으면 그다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 NAS에 들인 비용만큼 다른 리소스가 줄어드니 큰 맘 먹고 도전해볼 만도. 물론, NAS가 필요 없는 사람은 있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운용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 노트북과 스마트폰만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들은 애초에 디지털 기기에 대한 관여도가 적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미디어 극락도 현실보다는 못하니까. D